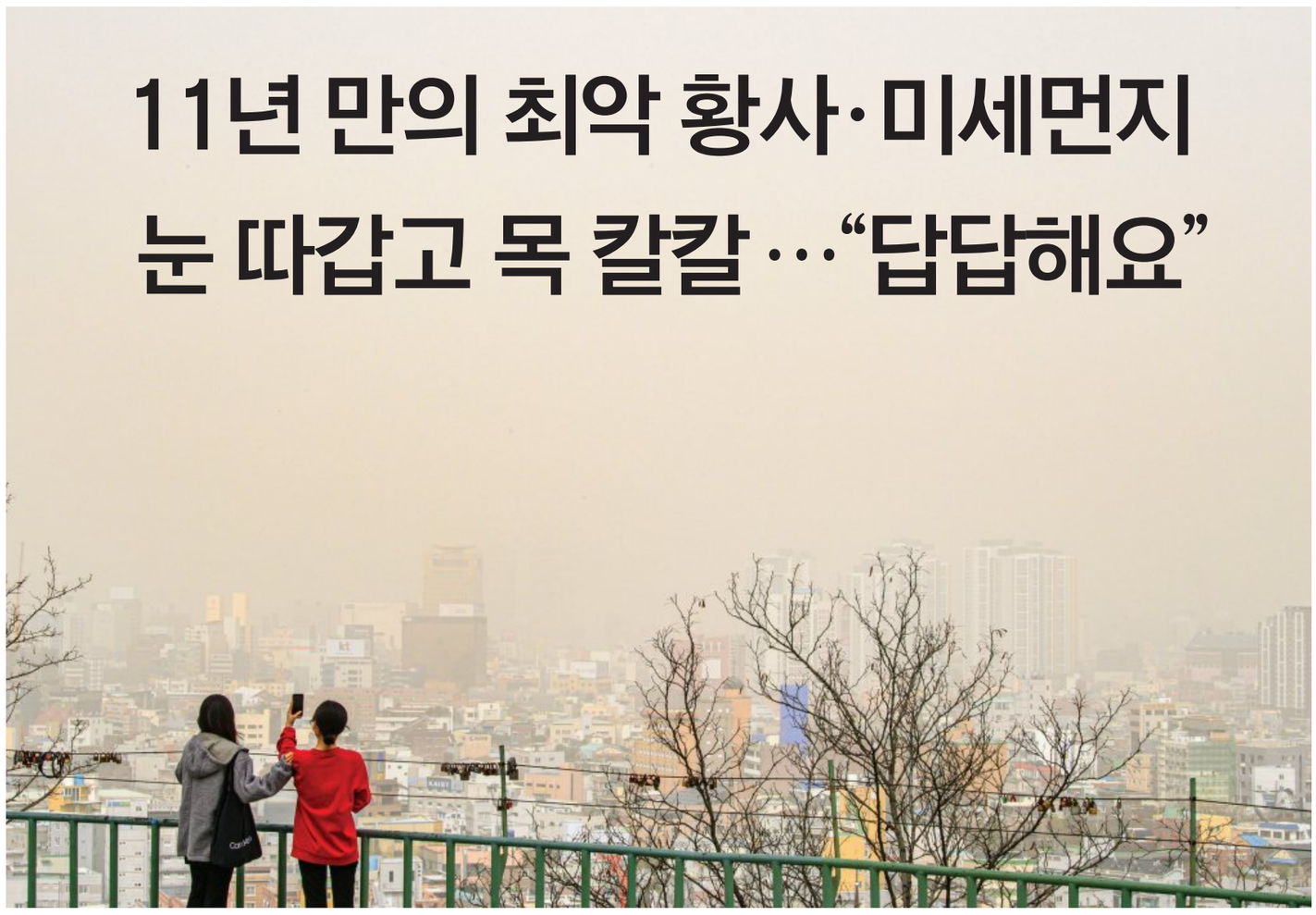
우암학원 창학 70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475호 1판 | 1952년 4월 20일 창사 | 69 |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 음력 2월 18일 | kwangju.co.kr

11년 만의 최악 황사·미세먼지 눈 따갑고 목 칼칼 …"답답해요"



광주전남지역에 고농도 황사와 미세먼지 등이 관측된 29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주의 모습이 뿌옇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주민들 하루종일 큰 불편 … 짙은 황사 오늘까지 이어져

29일 광주와 전남에서 고농도 황사가 관측되면서 시민들이 하루종일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전남을 덮친 고농도 황사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실외 활동 자제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2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미세먼지(PM10) 시간 평균 농도는 흑산도 936㎍/㎥, 광주 786㎍/㎥, 진도 151㎍/㎥ 등으로 관측됐다.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에는 황사경보가 발령 중이다. 광주·전남에 내려진 경보 단계의 황사 특보는 2010년 11월 11일 이후 11년 만이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10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오전 9시에는 광주와 전남 등 5개 시·도에 주의 경보가 추가 발령됐다. 이어 오전 11시 부산, 낮 12시 제주도가 추가되면서 17개 시·도 전역에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 이는 2015년 황사 위기경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기상청은 이번 황사가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짙은 황사로 인해 시계(視界)까지 불량해 운전자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황사 농도는 30일부터 점차 옅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6일부터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다"면서 "30일 부터는 황사의 농도가 점차 옅어지면서 황사특보는 차차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황사 특보가 해제된 후에도 황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처음으로 광주와 전남 등 전국 모든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도 황사 위기경보 대응에 나섰다. '주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올라가는 황사 위기경보 중 두 번째 단계로, 황사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동안 계속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내려진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환경부는 중앙황사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 기관과 해당 지자체 등에 학교 실외 수업 금지, 민감 계층 피해 방지, 실외 근무자 마스크 착용 등의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각각 담당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황사위기대응본부를 꾸리고 관용차량 등 자동차 운행 자제, 공회전 금지, 도로청소 강화,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조치 등에 들어갔다. 또 황사 농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계 단계 격상에 대비해 지역대책본부(본부장 시·도 지사) 구성 등도 준비하고 있다.

주의 다음 단계인 경계 단계는 800㎍/㎥ 이상 2시간 지속 예상이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확실할 때 내려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황사 농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계' 단계 격상에 대비하는 등 황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최악 황사에도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 ▶6면
KIA 개막 시리즈 2선발 투수는 이의리? ▶18면
굿모닝 예향 - 설 자리 잃은 개그맨들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공직자·기획부동산 투기 차명·탈세·부당대출 끝까지 추적"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靑 정책실장에 광양출신 이호승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면서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뒤,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후임으로 임명된 이호승 정책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경제수석, 기재부 1차관 등의 요직을 지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2025 '세계 양궁선수권' 유치 나선다

100 여개 국가 선수단 1천 여명 참가하는 대회
코로나19 시대 저비용 고효율

광주 국제양궁장 최적 인프라 갖춰
대학·실업 최강 인적 자원도 풍부
9월에 최종 결정

'양궁 도시' 광주시가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저비용 고효율' 대회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월께 개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대회는 세계양궁연맹(WA)이 주관해 2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린다. 리커브와 컴파운드별 개인, 단체, 혼성팀 경기를 펼치며 통상 80~100여개국에서 1000명 안팎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2009년 울산에서 열렸으며 올해 미국 양크턴, 2023년 독일 베를린으로 개최지가 결정됐다.

광주시는 대한양궁협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신축한 국제양궁장 등 최적의 인프라 등을 토대로 협조 의사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광주 국제양궁장은 연면적 3201㎡, 부지 4만5396㎡ 규모로 1077석 관중석을 갖춘 2층 건물과 580석을 갖춘 야외경기장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는 양궁 자원이 풍부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광주에는 여자대학부 최강팀인 광주여대와 여자 일반부 강자인 광주시청, 남구청 남자 양궁단 등이 활동 중이다. 세계적 양궁 스타도 많다. 광주여고에 재학 중이던 1984년 로스엔젤레스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서향순 선수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기보배 선수 등 세계적 선수들을 배출한 양궁메카이기도 하다.

이처럼 양궁 인프라 등이 모두 갖춰진 덕분에 이번 대회 개최비용은 30억~5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는 조만간 대한양궁협회가 협의해 유치신청서를 세계양궁연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이전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